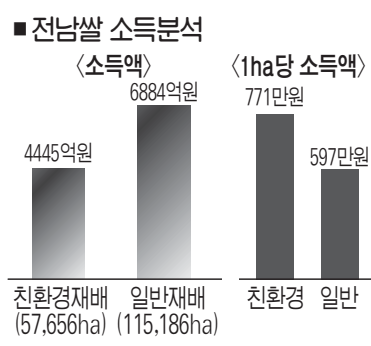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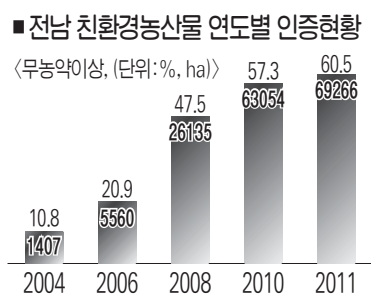


투데이

전남 친환경농업 육성 어디까지 왔나

인증면적 전국의 60%... 쌀소득 1천억 ↑ 작년 수도권 학교급식 진출하며 급성장

전국적으로 농가소득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전남은 농가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고 부채는 6% 넘게 감소한 것은 8년째 꾸준한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직후인 2006년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전남이 '녹색의 땅'이란 이미지를 확실하게 다졌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해 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졌다. 전남은 2004년 1407ha로 전국 대비 10.8%에 불과하던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지난해 말에 6만9266ha로 전국의 60.5%까지 끌어 올렸다. 2위 경북(2만944ha)과 비교해도 4.4배나 많은 것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라 할만하다. 전남의 친환경농업 비중은 경지면적 기준으로도 전국 대비 23%로 가장 높다.

9%인 17만3000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추산이 가능하다. 농가소득 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것은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시장에 납품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전남은 2005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100%를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으로 지원된 예산만 3371억원으로 276만명(누적 집계)의 학생들이 혜택을

을 봤다. 올해는 588억원을 학교급식 식재료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으로 도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 2506개교 33만4000여 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은 도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통상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재료 지원사업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소득의 유통마진을 제외한 전액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현재 쌀과 과채류 등 44개 품목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확보해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도는 시군별 급식 소요량의 60%(1만1967t)인 계약재배 비중을 2013년 80%, 2014년 10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해부터는 서울지역 학교급식시장을 뚫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진출 첫해 전남산 친환경 쌀은 서울 3515개 초·중·고교에 1만7000t이나 공급돼 전체 급식시장의 48%를 점유했다. 과채류도 581개교에 1만3000t을 공급했다. 임영주 전남도 농민식품정책관은 "전남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된 것은 학교급식이 일등공신이다"며 "농가 경영상황이 호전된 것도 결국 친환경농업의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기관 합동 착

혁신도시 에너지기관 합동 착공식 8일 혁신도시 홍보관 광장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에너지기관 합동 착공식에서 참석자들이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 이날 합동 착공식에는 구자운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배기운 니주·화산 국회의원 당선자, 강계두 광주시 경제부시장, 정순남 전남도 경제부지사,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오늘 개소

광주지역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9일 오후 4시30분 동구 급남로 무등빌딩 10층에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 비즈니스플라자'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2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이들 센터는 300여평의 사무공간에 11개의 팀실과 40개의 1인실, 회의실, 컨설팅 룸, 비즈니스캐 등을 비롯 유·무선 인터넷망을 갖추고 예비 창업자에게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과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경영 지원을 하게 된다. 이에 앞서 무등빌딩 13층에 구축된 '광주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지원센터'는 플랫폼(iOS, Android, Windows)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확보하고 앱(App)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와 교육실을 갖추고 있어 예비 창업자에게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광주시는 청년 실업자 문제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몰락,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 등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40, 50대가 겪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두 개 센터를 적극 활용,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 무등빌딩 2개 층 3개 센터에는 앱센터에 15개팀, 1인 창조센터에 9개

팀, 시니어플라자에 10개팀 등 총 34개팀에 79명이 각자 고유한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 전문 기술을 갖고 창업 준비와 콘텐츠 상품화에 나서고 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시니어 비즈니스플라자'는 IT 등 신기술, 문화콘텐츠, 출판 및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1인이나 3, 4명 단위의 팀(1인 창조기업)이 소정의 입주심사 절차를 통해 6개월 기준으로 일정기간 무료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앱(App)과 문화콘텐츠 분야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는 앱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앱 품질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앱개발 테스트베드 이용,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스튜디오 지원 등 창업에서 기술교육과 마케팅까지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영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임사장에 조병희씨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임 사장에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KOTRA·코트라) 출신 조병희(사진) 중앙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8일로 임기가 만료된 김대중컨벤션센터 임의수 사장 후임으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1순위로 추천된 조병희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조병희 사장은 지난 1982년부터 2011년까지 29년간 코트라에 근무했으며, 브뤼셀·코펜하겐 무역관장, 인사실장, 경영관리부장, 구주지역본부장, 해외마케팅본부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이번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임명은 전국 최초로 인사점검공청회를 거쳐 관심을 끌었다. /최현배기자 cki@

“한·중 FTA 민감품목 제외...농촌활력세 신설을”

전발연 대응방안 제시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근철)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전남에 미칠 각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8일 '녹색전남' 제73호를 통해 "한·중 FTA 체결 후 농어업 피해는 EU, 미국과의 FTA보다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제조·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할 이

득은 모호하고 즉각적이지도 않다"며 한·중 FTA는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 분야의 경우 중국의 농업의 규모와 가격경쟁력이 월등해 FTA 체결 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민감 품목은 원칙적으로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것 ▲농업·농촌 활성화와 지원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할 것 ▲4조원 규모의 농촌활력세를 신설하고 ▲포괄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것 등을 제시했다.

지역 차원에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수출 확대형 특화품목 육성 ▲녹색채널주식회사처럼 유통·가공 기능 강화 ▲중국 진출 유통망을 활용한 전남 농식품코너 개설 등을 주문했다. 또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저가 중국산 선박이 내수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운항중인 선박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와 규제를 도입하는 등 내수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광록기자 kroh@

박영준 前 차관 구속·강철원 기각

파이시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수 혐의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문지돈의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스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해야”

전국지방세협정결의문

전국 16개 시·도 세정과정(세무과장) 모임인 전국지방세협정의회가 부가가치의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재 5%에서 연말까지 20%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걸어 지방에 나눠주는 비율이 낮아 재정이 가장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이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지방세협정의회는 8일 "여수 시에서 최근 열린 '전국지방세발전포

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말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각각 79%, 21%로 국세 비중이 훨씬 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현재 부가가치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반드시 2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

포스하이알(주) 경력사원 모집
1. 모집분야: 기술영업직(경력직), 전기기술직(경력직)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검사(온라인) 및 면접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2012. 5. 3(목) ~ 2012. 5. 11(금) 16:00까지
4. 기타사항: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인, 고령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련법령에 의거 우대함
5. 문의처: 포스하이알(주) 경력지원팀 ☎ 061-813-2554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대상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참여자 모집
참가조건: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반질환자
참가기간: 본 임상시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후, 연구에 적합한 경우 약 12~14주간 총 4~5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별초를 하지않아 함께 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머 붙고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주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